

거북선의 새로운 이해

이내원 (이순신 숭모인)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이순신 하면 거북선, 이라는 연계즉답이 나올만큼 거북선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우리만의 독창적이며 세계적인 창제 전함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과는 어긋나게 거북선에 대해 바르고 정리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음은 놀랄 일이다. 때마침 지난주 KBS “불멸의 이순신” 53회(27편)에서 이순신의 신임을 받은 군관 나대용이 제작한 첫번째 거북선이 진수식에서 침몰해 많은 익사자를 낸것으로 해놓아 IT군중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는 기사도 들린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이후 약 200여년에 걸쳐 끊임없이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진왜란 시기의 거북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임진왜란 기간에 건조 투입되어 활약한 거북선은 모두 몇 척이나 될까?

문헌상 고증으로는 불과 3척 뿐이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조선수군의 판옥전선 보유척수가 많을때는 180척 정도까지 이른 점으로 볼 때 조선수군의 주력전선은 어디까지나 판옥선 이었음을 쉽게 알수 있다. 실제로 맨 첫번째 해전이었던 옥포해전이나 결사저지의 명량해전 에서는 거북선 없이도 승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 3척 뿐인 거북선이라 하더라도 충무공의 공식 전과보고서인 “임진장초” 나 일본 종군 문사들의 참전기록을 보면 일본수군의 화약무기라고 해야 두께 4~5cm의 참나무 방패 판도 뚫지 못하던 조총뿐이었기 때문에 돌격선으로 다수의 화포를 장착한 거북선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이 이순신이라면 이순신의 일등무기는 이순신 스스로 임금께 밝혔듯이 단연 화포였으며 이 화포를 14문가량 탑재한 판옥선은 동양 3국중 단연 최강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말의 최무선은 화약을 발명하여, 임진왜란 직전의 임금인 명종은 큰 배 판옥선을 만들어 이순신에게 막강전력을 실어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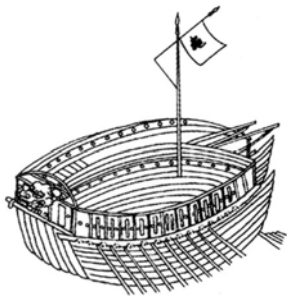
그러면 거북선은 과연 이순신의 발명품인가?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조선공학과 교수로 한선과 거북선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한 김재근 교수는 “이순신의 개발품” 이라고 부르는 것이 알맞은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거북선과 판옥선의 하체구조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이순신의 거북선은 소형 판옥선에 등판을 붙인 것으로 그 아이디어는 그보다 약 180여년 전에 태종대왕이 임진강에서 가상왜선과 수전 연습하는 거북선을 보았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에서 착안 했을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태종대왕은 이순신에게 거북선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이다. 크기가 왜소하여 위력이 없던 태종대의 거북선 아이디어를 명종대의 대형 판옥선에 접목시킴으로 위력적인 거북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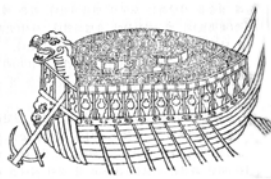
개발해 내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순신에게는 그 선조들의 축적된 지혜를 막강 전력으로 재 개발 생산해낸 공이 있다는 뜻이며 임진해전 압승의 이 모든 공을 이순신 에게로만 모으는 편중시각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견해로 이순신의 공헌을 이순신답게 승모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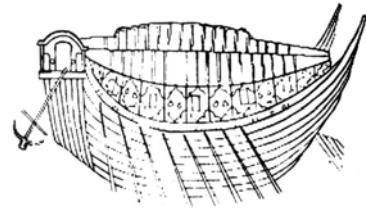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거북선의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전 문헌에 기록으로 전해지는 거북선 모형은 네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 1과 2는 이순신 사후 약 200년 뒤인 정조임금때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목이 움츠러들듯이 몸통에 붙어있어 그 입으로 화포를 쏠 수 있게한 통제영귀선과 오늘날 대부분 거북선 기념물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목이 위로 솟은 전라좌수영귀선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그림이 200여년의 시차를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 거북선을 제대로 묘사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림1] 통제영거북선



[그림2] 전라좌수영귀선



[그림3] 이순신종가귀선



[그림4] 「임진장초」 귀선



[그림5] 복원 실물 거북선(해군사관학교)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의 친필 전황 보고서인 「임진장초」에 기록된 그림 4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그림 4는 등에 두 개의 돛대와 지휘탑인 장대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장대가 노출되어 있어 장갑함의 모순을 스스로 담고 있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림 3은 이순신 종가에 전해지는 거북선 그림으로 목이 아예없는 것이 특징인데, 어떤 학자들은 목이 충

돌전법인 당파(撞破)를 위해 안팎으로 드나들게 고안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필자의 조사로는 이순신 사후 이순신의 직계 후손으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사람이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종가 거북선이 임란 당시의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또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여러 모형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개발 결함의 보완 노력과 새로운 필요에 따른 수용변형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모든 고전 그림이 원근, 비례를 적절히 표현하는 현대적 제도 기술이 없어 달걀 모양이 되어 실물모습을 보여주지 못 하는데, 그림 5의 길고 날씬한 복원품이 실물모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작년도에 뉴욕에서 공개된 일본 고성발굴 거북선 그림은 사물, 정황의 묘사가 정밀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엄청나게 크고 비둔한 선형으로 보아 이순신의 개발 용도인 돌격 당파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화로 볼 수 밖에 없을 듯하다.